

忠談師論

—景德王時代와 두 作品의 의미를 통하여—

金 侑 美*

차 례

- | | |
|-----------------------|---------------------|
| 1. 序 論 | 3-2. <安民歌>의 의미와 忠談師 |
| 2. 景德王時代와 忠談師 | 4. 結 論 |
| 3-1. <讀者婆郎歌>의 의미와 忠談師 | |

1. 序 論

그동안에 이루어진 충담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본 작가론의 성격과 관련시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방향으로 요약된다. 먼저 설화상에서 형성된 作意의인 인물로 보자는 견해와¹⁾ 실존인물로서 경덕왕대에 왕에게 직접 忠諫을 하였던 李純으로 보자는 견해²⁾가 그것이다. 이 같은 상반된 견해의 차이는 충담의 행적이 다른 향가 작가와 같이 자세하지 못하다는 데 원인이 있지만, 그 보다는 그를 설화적 인물로만 생각하고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현실성있게 접근해 보려는 의도가 회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1) 최 철, [향가의 본질과 시적 상상력], 새문사, 1983, 16면
 2) 김선기, '찌이빠 노래', [현대문학], 147호, 1966, 294-295면

필자는 앞선 연구결과에서 김승찬³⁾ 박노준⁴⁾의 견해를 좇아 실존인물로 보는데 동의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충담사에 관련된 [삼국유사]의 두 기록-卷3 塔像제4 生義寺 石彌勒條와 권2 紀異제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은 그를 역사상의 실존인물로 단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찰은 충담사가 실존인물로 누구이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에 관심을 갖고 천착해 보기로 한 것이다.

먼저 경덕왕시대의 사회상을 통하여 충담사의 역사인식과 세계관을 파악하고, 그의 두 작품-〈讚耆婆郎歌〉 〈安民歌〉-의 의미를 사회상과 관련하여 해석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밝히려고 한다. 즉 충담사의 성격과 작품의 의미를 경덕왕대라고 하는 사회와의 관련하여서, 충담이라고 하는 창작주체가 지향하는 세계관의 반영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2. 景德王時代와 忠談師

관념론적 미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발생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작품의 창작동인과 의미를 본다면, 작품은 단순한 미적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내의 '의미있는 거대한 구조물'로 이해된다. 그래서 작가와 작품은 초개인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제반 맥락에서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인간 행위와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키는 역동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⁵⁾ 이런 의미에서 충담이 작품을 통해 지향하는 의미의 한 부분은 경덕왕대라는 사회상과 관련하여서 파악해야 온당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경덕왕대는 신라 中代에서 下代로 넘어 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라에 있어 삼국통일로 무르익었던 武烈王系의 전제정권⁶⁾은 34대 효성왕대를

3) 김승찬, [신라향가론], 세종출판사, 1993

4)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5) 워시양 골드만, [문학 사회학 방법론], 박영신외2인 옮김, 현상과 인식사, 1984, 13-18면 참고

6) 삼국통일에 의한 무열왕계의 전성기는 33대 성덕왕대까지로 보고 있다.(신형식, [신라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117-118면 참고)

계기로 풀이 켜였고 경덕왕대를 지나 혜공왕대에 이르면 신라는 하대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 전후의 사정을 통해 확인해 보자.

먼저 효성왕대는 외척의 政事 관여로 인해 政派 간에 갈등이 극심하였고, 그에 따라 왕권의 衰微와 사회의 불안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이런 사정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⁷⁾ 혜공왕시대도 大恭의 亂을 비롯한 몇 차례의 반란을 통해 볼 때 왕위계승을 에워싼 귀족간의 정권 쟁탈이 극심한 혼란기임이 분명하다.⁸⁾

이 같은 前·後 시대의 사정으로 미루어 경덕왕시대도 그 전·후시대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예견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서술은 전·후 두 시대와는 달리 극심한 혼란을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自然災異와 같은 咎徵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혼란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설화속에 내비치고 있다. 즉 경덕왕시대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분명 일연의 역사적 안목에서 볼 때 합당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됨을 나타낸다.

경덕왕의 이러한 노력은 佛事에 관한 것, 大赦, 賑恤, 修宮築城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의미있게 보아야 할 것이 佛事에 관한 호국이념 강화와 官府의 개혁을 통한 전제왕권강화이다. 불사에 관한 치적은 주로 布施·佛僧供養·佛力에 의한 護國行事·寺刹創建·佛經講論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護佛理念으로써 나라를 護持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덕왕과 僧曇이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는 것이 경덕왕시대의 사회상과 僧曇의 두 작품에서 드러난다. 즉 僧曇과 그가 속한 집단의 신앙과 사상을 표현한 <찬기파랑가>가 경덕왕에게 있어서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받아지고 있다. 경덕왕은 僧曇사를 통해 반왕당파라고 할 수 있는 귀족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새로운 지지 기반을 찾고자 했고, '기파랑=미륵'으로 숭앙되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한 재야·서민층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융합을 꾀하고자 했다. 또한 僧曇이 왕의 요청에 응해 지은 시가 <안민가>도 유교적 왕도정치의 구현으로 보이지만, 실은 왕의 정치력을 힐책한 혁명적인 사상이 내포된 것

7) 이러한 咎徵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승찬의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김승찬, '효성왕대의 시대상과 원가', [어문연구] 26집, 어문연구회, 1995)

8) 이기백,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이', [신라정치사회사연구](중판), 일조각, 1994, 229면

이었다.

경덕왕 시대의 의미는 이러한 경덕왕의 노력과 그 사회가 지향하는 관계에서 찾아지는데, 먼저 경덕왕 시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점은 전제왕권 강화를 위한 관부의 개혁에서 드러난다.

경덕왕은 즉위 18년에 고유한 官號를 漢式으로 변혁했다.

兵部·倉部의 卿·監을 고쳐서 侍郞으로 하고, 大舍는 郎中으로 하였고, 執事舍知는 고쳐서 執事員外 郎으로 하고, 執事史는 執事郎으로 하였다. 調府·禮部·乘府·船府·領客府·左右讓方府·司正府·位和府·例作典·大學監·大道署·永昌宮 등 大舍를 고쳐서 主簿로 하고, 賞賜署·典祠署·音聲署·工匠府·彩典 등의 大舍를 主書로 하였다.⁹⁾

이 같은 개혁은 경덕왕 시대에 일관된 것이었고, 下代로 무너져 가는 신라의 왕권 회복을 위한 자구책이었다. 이는 곧 과거의 진골 귀족 연합을 부정하고 왕권의 전제화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이다.¹⁰⁾ 이러한 과정에서 경덕왕은 보다더 親唐的인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그의 전제왕권의 기반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경덕왕과 당나라와의 호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일화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왕은 당나라 대종황제가 불교를 무척 숭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萬佛山을 만 들어 바쳤다¹¹⁾

왕은 唐玄宗이 蜀에 있음을 듣고 사신을 당에 보내어 양자강을 溯上하여 成都에 이르러 朝貢하였다. 현종은 이에 감격하여 五言詩 十韻을 친히 짓고 써서 왕에게 보내며(이하 생략)¹²⁾

경덕왕 재위기간 중에는 당나라와의 사신 왕래가 잦았고, 특히 위 예문의 경덕왕 15년의 사건은 2월 上大等 金思仁의 時政得失의 상소가 있는 뒤이고, 곧이 은 3월의 祿邑制 부활과 관련해 볼 때 의미있는 일인 것 같다. 경덕왕의 친당적인 외교와 한화정책으로 인한 전제왕권강화 노력은 귀족관료와의 갈등을 초래했고, 보수적이고 자주적인 재야·서민층의 지지기반마저 무너뜨렸을 것이다.

9) [삼국사기] 권9 경덕왕 18년 正月

10) 이기백, '경덕왕과 斷俗寺', 이기백, 앞의 책 참고.

11) [삼국유사] 권3 塔像제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12) [삼국사기] 권9 경덕왕 15년

그리하여 경덕왕은 녹읍제와 같은 것으로써 그들과의 갈등을 무마시켜보려 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징적 방법으로 융합과 화유를 하고자 한 것 같다. 그런 상징적 문맥 중에서 흥미로운 것을 한번 보기로 하자.

[삼국유사]에 경덕왕은 玉璫의 길이가 8촌으로 보통사람과 다르다. 같은 맥락에서 지증왕의 경우도 이와 같은 상징문맥을 지니고 있다.

왕은 음경의 길이가 한자 다섯치나 되어 배필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三道에 使者를 보내어 배필을 구하였다.¹³⁾

지증왕 역시 신라에 있어 부자 상속제로 인한 전제왕권강화, 순장금지, 국호의 변경, 神宮과 郡縣制의 실시, 于山國 정복, 국호 연호의 제정¹⁴⁾ 등 국가체제나 국력신장면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전제왕권을 마련한 왕으로 신라사에서 한 획을 긋는 인물이다.¹⁵⁾ 그러므로 이 같은 상징적 문맥은 생식기능의 이상¹⁶⁾이라고 보기보다는 왕 자신이 일반인과 구별되는 특수한 외형상의 특징과 왕으로서 신비스러운 지혜를 갖게 된 표징으로서의 의미이다. 신라의 왕은 백제와 고구려왕들이 善射와 剛勇을 내세운 점과 달리 神明·明敏·寬仁·智略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¹⁷⁾이 특징인데 경덕왕과 지증왕의 음경이 크다는 상징적 문맥은 전제왕권 발휘에 대한 위압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덕왕의 왕권강화 노력은 그 치적으로 보아 상당한 것이었으나 무리한 漢化政策으로 인해 귀족계층과의 마찰에 부딪쳤고, 보수적이고 자주적인 재야·서민계층과도 갈등이 따랐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런 상징적 문맥은 그의 카리스마적 통치능력의 상징적 표현이고, 고집스런 전제왕권력에 의한 혈통계승의 의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경덕왕은 자신을 지지해 줄 새로운 인물로 表訓大德과 다른 성격의 인물인 충담사를 필요로 했다.

경덕왕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친당적인 전제왕권 강화과정에서 나타난 각 집단의 갈등을 무마시키고, 국가적 화합을 이루어보고자 했다. 그 한 예가

13) [삼국유사] 권1 智哲老王條

14) [삼국사기] 권4 智證麻立干條의 내용

15) 신형식, 앞의 책, 85면 참고

16) 김승찬, '효성왕대의 시대상과 원가', 245면 (주)8 참고

17) 신형식, 앞의 책, 68면

총담사가 속한 집단에 대한 것이다. 즉 경덕왕의 <찬기파랑가>에 대한 칭찬은 총담이 속한 집단에 대한 희유책이다. 이 같은 의도는 경덕왕 시대의 불교 동향에서 파악될 뿐 아니라, 총담사의 사회적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신라 불교는 원효나 의상 이래로 교학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는데, 신라 통일기에는 華嚴宗이 강세를 보이다가 통일 이후에는 唯識學 연구에 주력한 法相宗이 우세를 보인다.¹⁸⁾ 그런데 경덕왕 시대는 이 둘의 관계가 대등하게 나타난다. 이는 경덕왕의 불교 정책과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두 편의 설화를 통해서 살펴보자. 먼저 [삼국유사]권4 義解 제5 賢瑜珈·華嚴條를 보자.

경덕왕 天寶12년 여름에 가뭄이 심하여 瑜珈宗의 祖인 苜長寺의 大賢을 불러 금강경을 강연하여 단 비를 내리게 했고, 우물물이 솟아 올라 7丈이나 되었다. 이듬해 여름 고승 法海를 황룡사에 청하여 화엄경을 강연하니, 그것은 작은 일이라 하고 자신은 滄海를 기울여 東岳을 옮기게 하겠다고 하고 실행하니, 왕이 탄복했다.¹⁹⁾

황룡사는 자장이 정전을 강론하고 구총담을 창건한 이래 많은 화엄승이 활약한 사찰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해의 불력이 우세함을 말하는 것은 미륵불을 모시는 苜長寺의 법상종의 대현보다 비로자나불(大日如來)을 主佛로 모시는 화엄종이 우세함을 말한다 하겠다.²⁰⁾

다음 [삼국유사] 권3 탐상제4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恒恒朴朴條를 보자. 이 설화에서 박박은 미타신앙을 숭앙하고 부득은 미륵신앙을 숭앙하는데, 나중에 성불할 때는 미륵을 숭앙하는 부득이 먼저 성불함으로써 미타신앙을 도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관음으로 化한 여인이 두 사람의 陀羅尼를 듣고, 보현보살의 十大願 가운데 제 9원(願)인 “항상 중생을 따르다”(恒順衆生)라는 부득의 내용을 들어 준 것이지만 실은 미륵신앙이 우세하다는 한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설화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경덕왕 시대는 정책상 미륵신앙과 미타신

18) 법상종은 통일신라 이후 화엄종과 더불어 불교의 양대 주류를 형성한 종파이다. (최병헌, '삼국유사에 나타난 한국 고대 불교사 인식', [삼국유사의 종합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9) [삼국유사] 위의 인용주에서 간략히 요약한 부분임

20) 최병헌, 앞의 논문, 201면 참고

양이 동시에 숭앙되었다 하겠다. 이는 미타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나 미륵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을 동시에 대우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表訓大德과 眞表의 관계를 통해 보다더 분명해진다.

경덕왕대에 상제의 뜻을 어겨 아들을 낳게 한 表訓은 불국사·해인사의 창건설화와 관련된, 의상의 華嚴을 전수한 華嚴僧이다. 표훈은 앞의 설화에서 보듯 충담과는 달리 왕의 측근으로 권력권 안에 있는 귀족적 성향의 승려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권4 義解 제5 眞表傳簡條에 보면 경덕왕이 표훈과는 달리 미륵불을 숭앙하는 법상종의 승려인 眞表를 여러 가지로 회유하고 있음을 본다.

진표는 完山州(지금의 全州) 사람으로 경주에서 볼 때는 지방의 변두리에 속한 인물이다. 그가 주로 교화를 한 곳도 金山寺 法住寺 桐華寺 金剛山 등의 산간지방이다. 이 지역은 충담사의 “자갈 벌”에 해당된다. 즉 그는 신라의 변방지역에서 일반서민들을 상대로 교화활동을 했다 하겠다. 진표에 대한 경덕왕의 회유는 이들 지방의 일반 서민들에 대한 회유의 일환이다. 진표의 사회적 성격은, 미륵신앙에 바탕한 서민계층의 목소리를 <찬기파랑가>로 읊은 충담과 일맥 상통된다.

충담사는 이들 집단의 의식을 종교(미륵신앙)와 詩<찬기파랑가>라는 형식을 빌어 표현했으나 실은 그들 집단의 염원을 나타냈다고 보아진다. 이에 대한 경덕왕의 의도는 진표에 대한 회유와 같이 충담 집단에 대한 회유로 볼 수 있다.

3-1. <讀書婆郎歌>의 의미와 忠談師

작가란 어떤 의미에서 초개인적인 주체의 정신적 범주들에 내재해 있는 가능한 시각을 찾아 내세우는 전위대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초개인적인 주체와 하나가 되어 특정 가치들을 가능의식의 최대치로 옮겨 놓고, 그것을 은유의 논리와 화법을 통해 작품으로 생성한다.²¹⁾ 그런

21) 골드만, 앞의 책, 41면 참고

의미에서 충담사의 두 작품은 직접 서술이라 할 수 있는 산문에 비해 “詩”라고 하는 다소 완곡한 표현형식만을 빌렸을 뿐 그 사회의 어떤 집단이 지향하는 초월적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럼 먼저 <찬기파랑가>를 통해 충담사의 작가의 식과 성격을 살펴보자.

<찬기파랑가>는 충담사가 花郎 耆婆郎의 고매한 인격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 부른 시가이다.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환구를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울시 수풀이여
逸鳥내 자갈 벌에서
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 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김완진 해독)

노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郎僧 충담사는 시가를 통해 기파랑을 흠모·찬양하고 있다 하겠는데, 그럼 왜 충담사는 그를 흠모했는가? 이 점은 기파랑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에서는 “花郎”이라는 기파랑의 성격을 통해 밝힐 수 밖에 없다.

花郎道는 [삼국사기] 진평왕 37년조 최치원의 인용에서 처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玄妙한 道가 있으니 이를 風流라 이른다. 그 敎의 起源은 仙
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三敎를 포함하여 衆生을 教化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아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魯司寇의 主旨 그대로요, 착한 일만을 행함은 旣乾太子의 教化 그대로라.²²⁾

그 성격은 三敎가 습합된 것이나, 그 중에서 불교의 彌勒信仰이 주가 된다.²³⁾

미륵신앙²⁴⁾은 미륵보살에 의한 정토신앙이라 할 수 있다. 彌勒菩薩은 南天

2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조

23) 이 점은 [삼국유사] 권3 탑상제4 미륵선화조에서 살필 수 있다.

24) 미륵신앙에 대한 연구는 이미-불교학자나 문학연구가, 예를 들어 김동욱(‘도술가의 연구’, [한국가요의 연구]), 김종우(‘도술가와 산화가에 대한 일고찰’)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그 자세한 설명은 유보하기로 한다.

쓰 波羅門의 집안에 태어나 석가여래 在世時의 제자로서 석가불의 位를 이을 一生 補處의 보살로서 석가불에 앞서 入滅하여 현재 도솔천 內院에 居住하며 여러 天衆을 설법 教化하고 있으며 장차 그의 나이 四千歲 곧 人壽 五十六億七千萬歲를 지나 人世에 下生하여 龍華樹下에서 正覺을 성취하고 석가불의 濟度를 받지 못한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護國의이고 祈福的인 신라불교는 이와 같은 미래불인 미륵보살을 바로 현 국토에 모시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신라에서는 미륵하생경에 바탕을 둔 안락의 정토를 그리는 정토신앙이 성행했다.

신라인들이 미륵하생신앙에 의한 미륵신앙을 화랑도에 채용한 것은 [삼국사기]열전 김유신조에 보인다. 이에서 보면 김유신의 화랑무리를 “龍華香徒”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彌勒佛 禮香之徒 곧 彌勒佛 信仰의 모임이다.²⁵⁾ 또 [삼국유사]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나 孝昭王 竹旨郎條의 설화 역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같이 미륵과 화랑이 쉽게 결부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우리의 재래신앙에 내재한 童子信仰²⁶⁾이 미래지향적인 彌勒과 쉽게 결부될 수 있었고, 용신앙의 호국적 성격도 이에 습합되어, 미륵하생경의 체계위에서 그 사상이 구체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는 국토가 편협한 데다가 외적의 침입이 잦아 寧日없는 참담한 역경 속에서 생활하였기에 그 代償心理 작용에서 미륵을 숭앙하였다. 더구나 진흥왕이 전륜성왕 사상을 가지고 강대한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용지를 가졌으므로 쉽게 미륵하생 신앙을 화랑도에 채용할 수 있었다.²⁷⁾

그러므로 화랑도 창설은 중앙집권화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관등제와 軍制의 정비에 따른 인재양성에 그 현실적 사회적 목적을 두었고,²⁸⁾ 그 신앙적 호

25) 김영태, '미륵신화고', 불교학보3·4합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66, 141면

26) 신라인들은 神靈은 童子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사고를 가졌다.(三品彰英, [新羅花郎의 研究], 이원호역, 집문당, 1995, 65면) 김알지나 혁거세의 신화에서 이러한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童子信仰이다.

27) 김승찬, '신라향가연구', 동아대박사학위논문, 1986, 46면

28) 최광식, '한국고대의 제의 연구-정치사상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86, 176면

국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승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 왜 이같은 화랑의 禮讚이 경덕왕과 충담사이에서 “其意甚高”라고 여겨지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박노준은 충담이 그 무렵 衰退·弱化 一路를 걷고 있는 花郎團의 형세를 애석하게 여긴 나머지 미련과 아쉬움, 그것의 재생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짓게 되었다²⁹⁾고 하였고, 김승찬은 화랑의 당시 성격에 관한 박노준의 견해에 의의를 제기하고 사회상과의 관련으로 경덕왕대가 統·삼이후이고 전제왕권의 완성기인 中代라 하더라도 왕당파와 반왕당파의 귀족세력의 대립·갈등이 심했던 시기요, 그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사회의 불안이 누적된 시기인 만큼 이 시기를 구제할 文武 겸전의 화랑적 인물의 출현을 갈망했거나 아니면 바른 왕도의 실현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³⁰⁾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좀 다른 각도로 해석된다. 앞의 경덕왕시대의 의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덕왕은 한화정책으로 인한 전제왕권강화 과정에서 귀족관료들과의 마찰도 있었지만 보수적이고 자주적인 재야·서민계층의 반발도 컸다. 경덕왕은 이들 후자의 집단세력을 정치적으로 회유하고 예측시키기 위해 “기파랑”=“미륵”을 통한 그들 집단의 시를 “뜻이 높다”라고 하였다. 경덕왕의 의도는 충담으로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시<찬기파랑가>를 칭찬함은 충담이 속한 초개인적 집단의 역량을 얻고, 그들이 가진 기파랑=미륵이라는 신앙을 통하여 대사회적인 융합을 꾀하고자 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덕왕과 충담이라고 하는 주체자가 그들의 욕망을 일정한 매개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덕왕은 앞에서 나열한 그의 정치적 의도를 충담사와 그의 시 <찬기파랑가>를 통해서, 충담사는 기파랑을 통해서 미륵신앙에 의한 불국토 실현이라는 자신들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이 간접화된 주체의 욕망실현은 왕과 보수 재야·서민세력이라고 하는 현실적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욕망이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할 이상적인 것이라는 해석이 된다.

그럼 왜 충담의 성격을 보수적이고 자주적인 재야·서민 세력의 하나라고

29) 박노준, ‘찬기파랑사뇌가’, 앞의책, 217-231면 참고

30) 김승찬, ‘찬기파랑가’, 앞의 책, 156면 참고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충담은 미륵불을 숭앙하는 승려이다. [삼국유사] 生義寺 石彌勒條에 보면 생의사는 미륵불을 모신 三花嶺과 관계가 있는 절인데, 충담사는 이 절에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다려서 공양한다고 한다.³¹⁾ 이는 같은 책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의 왕이 충담에게 “어디에서 왔소”하니 그가 “소승은 3월 삼짱날과 9월 중양절이면 차를 다려서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드리는데 지금도 차를 드리고 오는 길”이라고 한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충담은 미륵불을 숭앙하는 승려이며, 화랑 기파랑을 흠모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화랑을 잘 알고 있거나, 화랑과 관계가 있었던 승려라고 할 수 있겠다.³²⁾ 이를 郎僧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과거의 기파랑을 흠모하고, 衲衣를 걸치고 櫻筒을 맨 남산 부근의 승려이다. 그는 당시 榮服僧과는 달리 외모가 초라한 승려이다. 즉 그는 승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처지도 아니고, 왕이나 제도권내에서 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그를 제도권 밖의 인물인 재야·서민층에 가까운 인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보수적이고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덕왕의 한화정책에 반발과 갈등을 가진 인물이고, 그 사상의 근저에 민간신앙에 바탕한 미륵신앙과 화랑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서민성은 그가 서민계층의 생각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미륵신앙과 서민들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일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탐상제4 洛山二大聖 調信條에 비록 꿈 속이지만 가난한 村夫가 굶어서 죽은 아이를 묻고 깨어보니 미륵석상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미륵의 자비심은 가난한 서민들의 꿈과 고달픈 생활고를 어루만지는 성격임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책 권2 기이 효성왕 죽지랑조에는 朔州 都督使로 부임하는 술중공이 竹旨嶺의 한 居士가 죽어서 자기 집에 태어날 꿈을 꾸고, 그 거사를 장사지내 주고, 그 무덤 앞에는 石彌勒像 一軀을 안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자 하는 것보다는 미륵을 통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축원의 의미가 더 깊다. 이처럼 신라인의 미륵신앙에는 가난한 서민들에 친숙

31) [삼국유사] 권3 탐상제4 생의사 석미륵조

32) 승려가 화랑내에서 그들의 신앙과 수련에 관여하였음은 이미 밝혀졌다.

[삼국유사] 권4 義解5 二惠同塵에도 惠宿이 화랑 好世郎의 무리에 속했다는 내용이 있다.

한 면이 있고, 미래완성적인 희망이 있다. 이러한 면이 “彌勒”-“미르”(龍)의 재래 龍信仰과 결합되어 서민층과 쉽게 결합될 수 있었다. 중국의 백련교도³³⁾나 신라 궁예의 무력집단들이 국가적 쇠퇴기를 틈타 미륵신앙의 미래지향적이고 서민적인 속성을 강조하여 대다수 서민들의 힘을 규합하고 집단화했던 것은 이러한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찬기파랑가>에는 이런 소외된 그의 처지를 “자갈 벌”로 표현하고 있다. 자갈 벌은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처지가 아닌 험난한 고난과 역경의 분투를 말한다. 또한 “자갈 벌”은 사회 내의 모든 생산 가치로부터 소외된 불모지를 의미한다. 이 자갈 벌이라는 충담사의 현실적 처지는 “달”이라고 하는 기파랑의 天上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부각되는데, 그에게 있어 “달”과 “물”에 의한 기파랑에 대한 환각적 영상은³⁴⁾ 자갈 벌(현실적) : 달(천상적)의 거리만큼이나 충담의 현실과 이상도 거리가 있음을 보인다. 그러기에 충담의 심정은 안타까운 것이었고, 드디어 <안민가>를 통해 그 실정을 힐책하기에 이르지 않았나 한다.

충담은 나중에 왕이 王師로 봉하였으나 굳이 사양하고 왕의 곁을 떠나는데, 이는 그의 신분이 앞의 자갈 벌에서 보듯 현실에 자의든 타의든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보수적이고 자주적인 서민계층으로 당시 귀족관료들의 권력 앞에서 무력한 것이었음과 또하나는 <안민가>에서 보듯 이미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힐책할 뿐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그들의 사회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암시받을 수 있는데,

화랑집단은 매 집단마다 최고귀족층의 화려한 명과 교사로서 그를 고문하고 지도하는 승려 낭도 한 명 그리고 진골 이하 평민에 이르는 천명 가까운 낭도로 구성된다.³⁵⁾

33) 백련교도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三品彰英, 앞의 책, 226면 참고

34) “환각적 영상”이란 용어는 이재선, [향가의 이해], 삼성미술문화재단, 1981, 84면의 용어이다.

35) 이기동, ‘신라 화랑도의 사회사적 고찰’, 동아대 사학파편, [한국고대사론집] 하, 858-859면

이렇게 보니 충담이 속한 집단의 성격은 화랑의 호국적 의지와 미륵신앙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보수적이고 자주적인 사회내의 비판적이고 비동일화된 인물들로 규정할 수 있다.

3-2. 〈安民歌〉의 의미와 忠談師

<안민가>는 경덕왕의 “爲朕作理安民歌”하라는 요청에 의하여 충담이 “應時奉勅歌呈之” 한 시가이다.

�은 아비요
 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진댄 민이 사랑을 알리라.
 大衆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진댄 나라 保全할 것을 알리라.
 아아, �답게 臣답게 民답게
 한다면 나라가 太平을 持續하느니라. (김완진 해독)

그 제작동기³⁶⁾나 제목에서 보듯 <안민가>는 현실효용적인 의도가 강한 작품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덕왕은 전제 왕권강화라는 자신의 정치력이 강한 갈등과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극복을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줄 새로운 세력을 기대했다. 그 과정에서 경덕왕은 충담사를 선택했다. 경덕왕이 <찬기파랑가>를 칭찬한 후 <안민가>를 짓게 한 것은 어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충담사의 현실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충담에게 王師라는 벼슬을 준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경덕왕 시대의 총체적 위기를 표현한 관련 문맥에서 파악된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의 五岳三山神의 출현은 처용랑 망해사조의 산신

36)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의 기록은 <안민가>의 창작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망국의 前兆로 해석된다. 경덕왕은 이미 즉위 15-16년에 나라가 어지러울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도 왕자(혜공왕)를 얻는다. 그래서 그의 불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즉위 19년의 <도술가>가 나오게 된 배경과 즉위 23년의 金良相(宣德王)의 등장으로 미루어 보아 즉위 24년의 <안민가>의 창작동기는 경덕왕 시대의 현실·정치적 위협과 불안의 최대치에서 가능했다 하겠다. 그럼 <안민가>를 통해서 충담사의 의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안민가>는 표면적으로는 君-아비, 臣-어미, 民-兒孩의 인칭적 은유(類喻)의 수사법을 사용하면서 君-臣-民의 바른 질서체계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논어 顏淵篇³⁷⁾에서와 같이 단순한 유교적 왕도정치적 피력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구절인 “太平을 持續하느니라”의 숨은 뜻은 현재 나라가 태평하지 못하다는 충담사의 현실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仁政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도 그 뜻을 알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에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는 맹자의 역성혁명사상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³⁸⁾

맹자는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사상을 내세웠는데, 이에 의하면 治者は 治者대로 피치자는 피치자대로 이상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소유할 것과 인민은 민심을 배반한 지도자를 타도해야 한다는 易姓革命을 주장했다. 맹자의 역성혁명은 天命思想³⁹⁾ 과 民本主義⁴⁰⁾에 입각한 것으로 治者답지 못한 治者, 천명을 벗어난 지도자는 민중의 봉기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1) 맹자의 역성혁명은 비록 인민 봉기를 구체적으로 선동하기 위한 것은 아니

37) [論語] 卷五 顏淵 第十二, 齊景公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38) 맹자는 仁道를 해치는 자를 賊이라 하고 義理를 해치는 자를 殘이라고 하며 殘賊을 일삼는 자를 一夫(왕이 아닌 匹夫)라고 한다. 一夫 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살해하였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맹자] 梁惠王 章句 下 八章, 離婁章句 上의 2장 3장의 참고) 라고 하여 역성혁명을 시인했다.

39) 맹자의 천명사상은 “천명이 아닌 것이 없고”([맹자] 盡心章句 上 2장) “천명은 어찌할 수 없는 것”([맹자] 萬章章句 上 6장)등에서 살필 수 있다.

40) 맹자의 민본주의는 “민이 가장 귀한 존재”([맹자] 盡心章句 下 14장)라는 사상 속에 있다.

라 할지라도 집권자에 대한 警戒理論으로서 민심을 잃으면 큰일난다는 것을 왕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충담사의 <안민가>도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왕에게 이 같은 역성혁명의 이론으로 일침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이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없고 왕다울 수 없는 사정은 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역성혁명도 가능하게 된다.

경덕왕이 비록 미륵의 화신인 기파랑을 추모하고 미륵신앙에 기대한 호국의 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충담사의 생각은 이런 역성혁명에 근거한 왕의 警戒에 있다 하겠다. 비록 그가 혁명을 선동한 근거는 없으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미륵불을 내세운 수많은 민중봉기를 볼 때 <안민가>에 담긴 그의 사상은 매우 과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민가>는 경덕왕의 실정에 대해 재야서민 계층으로 대표되는 충담사의 강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하겠다.

4. 結 論

향가의 연구에 있어서 작가론은 인물의 설화성과 자료의 영성으로 인해 작품론보다는 미진하였다. 그러나 충담사의 경우는 설화성과 역사성을 동시에 구비함으로써 문학사회학적 접근이 용이하였다.

본 고찰은 작가가 지향하는 작품의 의미를 사회와의 관련하여 해석하고, 그것을 작가의 성격, 작가의식과 관련시켜 온전한 작가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충담사의 성격을 경덕왕대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두 작품의 의미망 속에서 찾아 보려 하였다.

경덕왕대는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 강화 노력이 불교정책과 한화정책을 통해 실현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는 귀족관료와 보수재야서민 세력의 갈등과 반발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 아래서 경덕왕은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했다. 그 새로운 인물이 곧 충담사이다.

41) 맹자는 천명을 거역한 왕은 천명을 받은 자에게 멸망한다는 것을 [孟子] 公孫丑章句 下 8장에서 역설한다.

충담사의 사회적 성격은 경덕왕 시대의 진표와 같이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이고 보수적인 재야서민 계층의 하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찬기파랑가>에 나타난 충담사는 화랑과 관련이 있었던, 현재는 “자갈 벌”에 속하는 신분으로서 ‘기파랑=미륵’의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찬기파랑가>는 그가 속한 집단의 현실에 대한 이상추구의 내용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자갈벌”에 속해 있으므로 아무리 현실개혁의 이상이 있더라도 실현할 수 없는, 철저히 권력이나 제도권 내에는 영입될 수 없는 소외된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사정에서 <안민가>에 나타난 충담사의 의식은 왕의 요청에 부응해서 치자 피치자의 올바른 질서체계를 강조한 온건한 것이기보다는, 질서체계의 부조화나 왕의 실정을 나무라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민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충담사의 의도는 왕의 실정에 대해, 나아가 맹자의 정치이념을 역설함으로써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왕에게 나라가 태평하지 못함을 힐책하고, 仁政에 의한 통치를 권유하며, 이를 어기면 천명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강도 높은 현실비판의식을 나타냈다.